

3년차 동차가 전하는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김동주님

합격수기

I. 들어가는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1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김동주라고 합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공부한 결과, 운이 좋게도 이번에 3년 동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세무사인 사촌형의 권유로 수험계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합격수기를 쓰는 이 순간도 믿기지 않을 만큼 아직 얼떨떨한 기분이라, 제가 후배 수험생 여러분께 과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처지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선배 관세사님들의 합격수기를 읽고 자극도 받고 또 공감도 하면서 '아 다들 이렇게 공부 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감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하에서 쓰게 될 내용은 부족한 저의 수험생활을 여러 예비관세사님들께 이야기 형식으로 하고자 하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제 공부 방법 및 생활방식을 그냥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I. 1차 시험

1. 개요

저는 경남 진주에서 2011년에 혼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여타의 정보가 없었던 터라, 첫 1차 시험 날이었던 2012년까지 1년 동안 1차공부만 하였습니다. 돌아해보면 정말 미련하게 1차만 공부했던 시기라 생각이 되지만, 3년 동차공부를 할 때에는 역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1차 시험 모두 평균 80이 넘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험은 딱 평균 60점을 맞는 사람이 공부 제일 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차는 저처럼 하기 보단, 2차와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60점대 중반이나 70점을 목표로.

2. 과목별 공부 방법

(1) 관세법 (첫 번째 시험 : 95점, 두 번째 시험 : 92.5점)

처음 1차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2차 공부를 할 때처럼 법의 전반적 이해보다는 각 각론별로 따로따로 암기를 하였기 때문에 각 제도별 유기적인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무작정 암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저는 무역학과가 아닌 경제학과 학생이기에 처음 보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자기합리화를 하고 무작정 덤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각 제도별 큰 골자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세세한 부분에서 말만 살짝 바꾸는 형식이라고 인지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쟁겨보려고 했습니다.

(2) 무역영어 (첫 번째 시험 : 92.5점, 두 번째 시험 : 90점)

책을 주문하여 처음 펼쳐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괜히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덤벼보자는 식으로 시작하여,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니, 기본적인 무역서신 해석과, CISG, INCOTERMS, UCP, MIA, ICC2009에서 문제가 집중된다고 판단하여 상기 법들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합격수기를 보고 계시는 1차 준비생 분들은 시간적 여력이 괜찮으시다면, 2차과목인 무역실무와 병행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내국소비세법 (첫 번째 시험 : 85점, 두 번째 시험 : 75점)

내국소비세법은 관세사 시험에서는 회계학과 더불어 2차와 관련이 거의 없는 시험입니다. 때문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약간 관세법과 무역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태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방심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기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문제씩 나오는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을 소홀히 하는 수험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은 법체계가 비슷하며 내용 또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득점하기는 더 쉬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4) 회계학 (첫 번째 시험 : 45점, 두 번째 시험 : 65점)

회계학은 1차 시험의 꽃이라고 합니다. 회계학은 내국소비세법과 달리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과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원리,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까지 해야 되는 공부의 양도 방대할 뿐 아니라, 회계학은 암기 과목이라기 보단 약간의 암기와 이해 및 계산을 요하는 과목이기에, 휘발성이 그 어떤 과목 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동차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은 회계학은 꼭 하루에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풀이라도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급속의 휘발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45점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철 승강장에 쫓그리고 앉아 가채점을 하면서, 과락걱정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회계학은 과락이 많이 나는 과목이므로, 수험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III. 2차 시험

1. 개요

2차 시험은 총 세 번을 봤습니다. 1번째 동차 시험은 내년 유예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한 상태로 고사장을 가서 4교시 마칠 때 까지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유예를 생각하시고 1차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은 1차 합격 후 공부를 안했을지언정 2차 시험 날 꼭 고사장을 찾아 당일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또 자극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2차 고사장을 찾는 것 자체가 1차 합격생만이 가지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특권을 누리십시오.

첫 유예 시험 때는 긴장을 너무 한 나머지 시험 치기 이틀 전에는 3시간 수면을 취했고, 시험 직전 날은 1분도 안잔 상태로 고사장을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머리가 멍한 상태였기에, 손은 답지에서 열심히 찍고 있지만 ‘내가 지금 무슨 소릴 찍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 초조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2번째 동차시험이었던 올해 2차 시험은 작년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 의사선생님께 수면제를 처방받아 전날 수면제를 먹고 잤습니다. 수면제가 다음날 머리를 멍하게 할지언정 잠을 안자고 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6시간 이상 폭 잠을 잤으며,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고사장을 갔고, 4교시가 끝 날 때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1)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첫 번째 유예 : 46.5점 , 올해 시험 : 58.5점)

관세법은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문제풀이과정 수업을 들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2차 관세법도 문제없다는 생각이었으나, 저의 크나큰 자만이었으며 오산이었습니다. 2차 관세법은 1차와 달리 법의 전반적 이해와 각 제도별 유기적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하며,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갈현근 관세사님이 항상 얘기 하셨고 또한 올해 시험 채점평을 살펴보면, 법조항을 그대로 적은 수험생도 적지 않으나,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더욱 중요하며 또 그러한 수험생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 내용의 암기는 기본적으로 하되, '설명'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타 수험생과 차별화된 답안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환급특례법의 경우, 저 같은 경우 본 시험에서 시간 부족으로 조금 적다가 답안지를 제출하였지만, 설사 그런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1교시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여야 하는 과목입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관세법에 All-in하고 환급특례법은 버리는 수험생을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첫 번째 유예시험에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불합격 후, 아침에 항상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무조건 환급특례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 시험에서 완벽한 답안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시험장에서 환급특례법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첫 번째 유예 : 48.5점 , 올해 시험 : 59.5점)

HS는 조전의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문제풀이과정 수업을 들었습니다. HS는 관세사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두려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HS는 울고 들어갔다 웃으면서 나온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는 다른 과목보다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험생활 후반기로 가면서 HS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전략과목이 되었고 4월 이후의 모의고사에서는 다행히 HS과목만 유독 70점대 이상으로 항상 나왔었습니다. HS 같은 경우 시험 치루기 2달 전쯤의 시기인 4,5월부터는 손이 주규정과 호의 용어를 신기하게도 기억을 합니다. 머리로의 생각이 안 떠오르지만, 첫 단어만 딱 떠오르면 손이 알아서 쓰는 신기한 과목 같습니다. 이거 저만의 증상이 아니라, 여러 수험생도 그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S는 주규정과 호의 용어를 많이 써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암기식을 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암기식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민망하면 민망할수록 좋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런 암기식이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최대한 어이없을 정도의 것(역사 주-언어를 조금 순화 하였습니다.)으로 만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시험에서는 해설서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고들 합니다. 저 또한 본시험에서 당황을 많이 하였고, 전략과목으로 여겼던 HS에서 앞통수 뒤통수 다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해설서 내용은 거의 못 적었고, 당황한 나머지 단순히 주규정을 적는 10점 문항에서도 아예 다른 내용을 적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시험에서 해설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분류규정'은 통칙과 호의 용어, 부, 류의 주규정이므로 이들에 비중을 좀 더 주어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고, 부차적으로 해설서를 공부하시는 것이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관세평가 (첫 번째 유예 : 46점 , 올해 시험 : 56점)

관세평가는 김00 관세사님, 김병수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문제풀이 과정 수업을 들었습니다. 관세평가는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40점대에서 50점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본 시험에서도 50점 문제에서 계산 값을 틀리게 적었으며, 한 문제는 시간 부족으로 적지 못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6점이라는, 실력에 비해 분에 넘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취약 과목을 수험생 여러분께 뭐라 조언을 드리기가 다소 쑥스럽긴 하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올해 채점평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는 WTO 평가협정은 필수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관세법의 법원(法源)이 협정이기도 하거니와, 올해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가령 일괄거래와 같이 협정에서만 나오는 내

용도 문제로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평가라는 과목의 특성상 보는 시각에 따라 과세가격이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값의 정확성보다는 그러한 값의 도출과정과 근거가 정확히 뒷받침 된다면 답이 틀리더라도 본시험에서 득점 하시는 데에는 점수가 폭락 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물론 사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작년과 올해 두번의 2차 시험을 치러본 결과 느낀점 입니다.

(4) 무역실무 (첫 번째 유예 : 39점 , 올해시험 : 69점)

무역실무는 최OO 관세사님, 박병호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문제풀이 과정 수업을 들었습니다. 상기 저의 취득 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에게 절망을 주었던 과목이기도하고 올해 평균 60점이 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시험에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기에, 본 시험에서는 대외무역법은 거의 적지 못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과락으로 정말 참담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한 환급특례법처럼, 오후와 저녁 각각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을 공부하는데 **무조건** 투자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많은 수험생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적지 못했지만, 저는 큰 막힘없이 어느 정도 기술 할 수 있었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역실무는 방대한 내용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박병호 관세사님의 교재를 보면, 입이 떡 벌어 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타 과목에 비해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기도 하며, 무역의 전반적 과정을 다루는 과목이기에 나름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3대 협약이라고 하는 CISG, INCOTERMS, UCP 는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속적으로 챙겨보시며 숙지하시길 바라며, 이들을 기본으로 하여 올해 기출 되었던 몬트리올 협약을 비롯해 각각의 운송협약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송협약은 기본 골짜가 비슷하기 때문에 도표화 하여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IV. 기타 수험생활

1. 모의고사

작년에는 W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수강 하였으며, 올해는 FTA 학원에서 수강하였습니다. 작년은 수강생 80여명 중에 20~30등을 주로 하였으며, 올해는 140여명 중 1~10등 내외를 하였습니다.

저는 수험기간이 길었던 만큼,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상위권을 유지 할 수 있었으나,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 일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실제 합격자들 중에는 모의고사 하위권에서도 합격한 수험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FTA 학원에서 상위 20위권 수험생 중에서 19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모의고사의 순위가 실제 시험과 직결된다고 확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곧 시행될 1월부터 6월까지의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또는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일희일비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공부하시면, '진정한 승자' 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생활 패턴

아마 수험생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낙이 수면 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정 수면시간이 7시간 내외라 생각합니다.

생활 패턴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것 보다, 자신의 뇌와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활 패턴을 간단히 소개 해 드리자면, 저는 노량진 고시원에서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정도에 기상하여 씻고 아침식사 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독서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시 반 정도까지 아침공부 후 2시

에서 2시 반 정도까지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7시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저녁식사 후 소화도하고 바람도 쐬 겸 노량진고시촌을 크게 한 바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돌곤 했습니다. 이후 8시 반 정도부터 12시 독서실 문 닫는 시간까지 공부 후 새벽 1시정도에 수면을 취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잠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낮잠을 잔적이 없지는 않으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정도에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지가 그 어느 누구보다 약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휴대폰 붙잡고 있을 것을 잘 알기에 고시원에 놔두고 다녔습니다. 저와 같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가 잘 안되시는 분은 휴대폰을 아예 없애버려서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는 공부하려 할 때는 집에 놔두고 다니시며 그날 하루에 온 연락은 밤에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3. 슬럼프

관세사 공부는 학창시절에 치루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단기간의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짧게는 1년 길게는 다년간 공부하시다보면 슬럼프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다른 친구들은 취업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갔는데...’

3년 6개월의 수험기간동안 수 없이 했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공부는 자연스레 하기 싫어졌습니다. 행여라도 모의고사를 망친 날이라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공부하는 환경을 바꿔보기 위해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빈 강의실가서 공부 해보기도하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가볍게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찾아온 슬럼프를 즐기지 마시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겨내셨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

4. 휴식

장기 레이스인 수험생활에서는 공부만큼이나 휴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1월 이전까지는 매주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하고 쉬었습니다. 원다는 표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어디 놀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다음날 영향을 주는 행동보다는 말 그대로 휴식(休息)을 취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등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휴식 말입니다.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1월부터는 모의고사가 끝나는 토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그 날 하루는 위와 같이 쉬었습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 날이면, 공부하면서 효율이 오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시험 한 달 전인 6월 중순까지는 항상 쉬는 날을 두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조금하게 생각하시고, 일주일 고생한 자신에게 매주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하루정도의 방학을 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V. 수험생활을 정리하며..

이상에서 저의 부족했지만 후회는 없었던 수험생활의 전반을 말씀드렸습니다. 합격수기라는 글의 특성상 제 자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겸손하게 저의 공부 방법 및 수험생활을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혹시 읽으면서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공부 방법에 저의 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 생활 중 연습장에 '김동주 관세사' 라는 글자를 수 없이 찍어본 기억이 납니다. 31기 김동주 관세사라는 말이 여전히 어색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눈감는 날까지 제 이름 뒤에 붙을 '관세사' 라는 호칭을 얻은 것에 대해 온 세상이 아름답고 기쁘기만 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선물받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관세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고 수험 생활 중 나아가야할 방향을 끝없이 제시하며 멘토가 되어준 사춘형 변정규 세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나의 벗 임재홍, 어려울 때 마다 늘 곁에 있어주는 친구 재욱이, 서로의 힘든 수험 생활을 공유하면서 수험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예비 세무사 진우, 그 외 도움 준 수많은 친구들, 항상 친형 이상의 형이 되어준 순성이 형님, 시험 전 후 결과를 기다리며 쏘쏘해하고 있을 때 응원의 말 전해준

성이형님, 재진이, 성훈이, 현민이, 종혁이, 한울이, 경목이, 용우 그 외의 여러 학교 선배님들께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못된 동생에게 매월 잊지 않고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준 누나, 수험생 아들을 둔 직로 저보다 더 마음 졸이셨고 아들 혼자 멀리 고생길에 보내놓고 마음고생 했을 엄마, 28년간 저의 방패와 장이 되어주신, 나의 가장 큰 자랑,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이상 길었던 저의 수기를 읽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도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10월 가을 김 동 주 드림.

FTA
관세무역학원